

大學環境의 文化化와 便益施設의 개선

黃 琪 源

(서울大 環境大學院)

1. 序

大學은 眞理를 탐구하고 學問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活動이기도 하고, 機關이기도 하며, 共同體이기도 하고, 또 그 環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은 人間의 完壁性을 추구하는 知的 啓發로 정의되는 文化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生活樣式인 文化行爲主體인 個人은 文化를 學習에 의해서, 즉 社會的 遺傳(social heredity)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대학이 가진 文化的 구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大學環境—物理的인 環境에서 보아 敎育, 研究, 社會奉仕를 하기 위한 각종 施設과 이를 포용하는 ‘캠퍼스’, 그리고 그 影響圈에 속하는 대학 주변—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文化行爲를 담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그릇’인 동시에, 그 자체가 역시 文化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現代의 大學環境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敎育·研究活動이 진행되는 環境으로 바뀌어가는 만큼, 民願業務 보러 오듯 불일단 보고서는 금방 떠나버리는 應舍가 아니고, 研究와 生活이 이루어져 일어나는 文化環境으로 바뀌어 가

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에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便益施設의 量的 확충과 質的 개선이 學生의 福祉를 위한 施惠施設의 차원을 떠나서 大學環境을 文化化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小考에서는 大學環境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便益施設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환경을 文化化하고자 하는 方向과 主要課題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大學環境의 形成과 變化

大學의 淵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카데미아’나 ‘류케이온’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의 大學은 12,3세기경 中世 ‘유럽’에서 ‘길드’ 형태의 대학이 형성되어 世俗學問이 발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그 후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을 거치면서 宗教와 古典 위주의 學問研究에서 벗어났고, 18세기 이후 近代의 大學은 國家別로 그 성격과 기능이 分化되었다. 現代의 대학은 研究, 敎育, 社會奉仕의 3大機能을 중심으로 해서 多樣化, 專門化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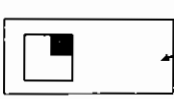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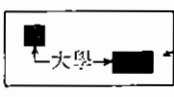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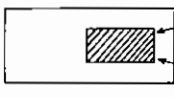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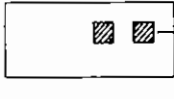


한편 大學環境—대학의 研究·敎育施設들과

1) 김윤태(1982), “대학의 역사”, 서강학보사 편, 「대학과 학문」,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12~21.

이를 포용하는 ‘캠퍼스’—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캠퍼스’형의 大學은 19세기 이후의 近代大學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2,3세기의 ‘길드’型 大學은 대학 외부의 壓力—敎皇, 皇帝, 市民 등—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리서 公役免除, 學內裁判權 등의 특권을 보유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敎室을 포함한 자체의 建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敎授도 學生과 같이

떠돌아 다니면서 다른 施設을 빌어 썼다. 그러다가 오늘날 單科大學(college)의 前身인 學寮(collegium)가 생겨나서 專用施設을 가지게 되었으며,²⁾ 이런 학료들이 集合化하여 일종의 大學地區가 형성되었다. 그 후 16세기경에는 학료 이외의 固有施設이 생겨나면서 ‘캠퍼스’型 大學의 原型이 나타났다. 오늘날 보는 ‘캠퍼스’型 대학은 19세기에 들어와서 非學寮型 大學들이

〈표 1〉 大學의 成長과 캠퍼스의 發生

1 단계	다른 施設을 빌려서 大學活動이 이루어짐		都市 (中世의 大學)	
2 단계	學寮의 발생 (專用物의 발생)		都市 (中世의 大學, 프랑스의 新캠퍼스)	
3 단계	學寮의 集合化 (大學地區의 발생)		大學地區 케임브리지대학 하바드 대학	
4 단계	學寮 外에 固有施設의 발생 (작은 캠퍼스 발생) (住空間 分離의 方向)		캠퍼스 하이델베르크 대학	
5 단계	大規模 캠퍼스의 발생	都市內 大學		캠퍼스 都市 런던대학 동경대학 서울대학
		一部移轉		중앙대학 경희대학 성균관대학 나고야대학
		複캠퍼스		파리대학 동덕여대
		移 轉		日本 中央大學 일본 筑波大學 가톨릭 의대

자료: 건우사, 「건축설계자료집성 9」, p.129(일부 수정).

2) 원래는 가난한 학생을 위해 설립한 무료기숙사라고 한다. 점차 大學(university)의 활동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생활과 교육의 전형적 중심이 되었다.

등장하면서 나타났으며, 현대 都市의 발달이 都市活動의 종류에 따라 專用空間을 부여하고 職住近接을 도모하는 추세에 따라 대표적인 大學環境의 형태로 정착하였다.³⁾ 특히 현대에는 郊外에 대규모로 綜合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과 연관된 시설을 집중시켜 일종의 大學都市로 개발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⁴⁾

그리고 大學環境과 그 外部環境과의 관계를 보면 초기에는 隔離, 敵對 또는 君臨의 관계에 있다가 宿食, 購買, 用役 등을 授受하는 經濟的 관계에서 대학이 地域社會 發展의 核이 되고 自負心의 원천이 되는 관계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都市 안에 있든, 郊外에 있든, 또는 大學都市를 구성하고 있든 대학의 影響圈에 속하는 환경은 다른 환경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표 1〉 참조).

3. 大學環境의 特性

현대 大學環境은 우선 研究와 教育, 奉仕를 주목적으로 하는 專用施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象牙塔’이라고 불리우듯 독특한 構造와 形態를 가진 각종 外廓施設(建物)과 內部裝備 및 광대한 ‘오픈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는 地形이나 울타리로서 외부와 차단되는 ‘聖域’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大學의 自由와 學問의 自由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환경을 일반 주변환경과 구별, 구획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실용적으로는 實驗 實習을 위한 넓은 土地와 高價·精密한 裝備의 보호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는 ‘人口’는 教授, 學生, 職員, 訪問客이라서 다른 都市施設을 사용하는 不特定 匿名의 多衆에 비해서는 상당히 同質의이기 때문에 그 行動樣式을 예측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專攻과 關心領域이 다

르고 社會·文化的 背景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思考와 行動이 대단히 異質의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들이 時間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계절과 요일, 밤낮에 따라서 盛需期와 非盛需期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盛需期에는 教育과 研究가 同時多發로 이루어진다.

또 캠퍼스내에서의 移動이 빈번하여 전반적으로 대단히 流動的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요즈음의 대학은 卒業定員制가 실시된 후 學生數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自動車交通이 증가하여 종래의 靜的인 學園에서 動的인 小都市로 변모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環境利用의 ‘패턴’은 大學의 施設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4. 大學 ‘캠퍼스’의 問題들

오늘날 韓國의 많은 大學 ‘캠퍼스’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먼저 空間 利用에 있어 過密現象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대학의 시설과 캠퍼스는 時間帶에 따라 空間利用密度가 끊임없이 바뀐다.” 또 需要의 變化에 대해 그 量을 쉽게 增減하거나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 없어 대단히 非彈力的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本來的 한계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學事計劃과 연동된 施設計劃을 작성, 운영하게 되면 대개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卒業定員制 이후 大學人口가 시설의 收容의 量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오랜 시간 동안 長期 計劃이 없이 短期的 適應에 의해 시설을 늘려 왔기 때문에 시설 構成과 分布가 불합리하고 利用方式이 개선되지 않아서 過密現象을 쉽게 해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20세기에 들어오면서 CIAM 등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지구제를 주장하면서 도시의 활동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4) 한국의 대덕 연구학원도시나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5) 지방 출신 학생 중에는 수세식 양면기를 처음 사용해보는 민기 어려운 실례도 있다.

6) 행정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이면 郡, 5만 이상이면 市로 분류된다. 대학의 주간 활동인구는 이 규모에 충분히 달한다.

7) 주간인구와 야간인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空洞(doughnut)’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처음에는 未開發 郊外에 자리잡았지만 그 후 계속된 都市化에 힘써서 주변으로 확장할 여지가 없다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은 校內外에 만연하는 環境汚染과 公害의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한다.⁸⁾

다음은 施設의 質이 學問發展에 따라 끊임없이 향상하는 教育·研究의 內容과 方法이 요구하는 '서어비스'水準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일반 教育·研究를 위한 汎用施設보다는 특수한 研究를 위한 專用施設의 경우⁹⁾ 한층 더 심각하다.

이와 같은 시설의 量과 質 모두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大學環境에서 教育·研究에 직접 쓰이는 시설 이외의 支援施設, 특히 大學人口의 생활을 위한 便益施設—식사, 휴식, 위락, 구매, 집회, 서어비스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과 배려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는 大學經營者들이 가지고 있는 大學觀, 즉 대학은 외부세계로부터 격리된 禁慾과 克己의 修道場이어야 한다는 保守的 發想이 작용하고 있어 便益施設을 奢侈나 施惠로 여기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이른바 '大學村'으로 불리워지는 학교 주변의 商業地域에서 방황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¹⁰⁾ 특히 分校 캠퍼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간 이외에는 母都市로 탈출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問題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法制와 대학의 便益施設 現況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便益施設은 좁은 뜻으로는 大學設置基準令에서 규정한 學生福祉施設이고, 넓은 뜻으로는 體育場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基準令에는 구체적인 施設基準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文教部 行政指針에는 學生會館과 體育館으로 구

분하고 학생 1人當 面積基準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¹¹⁾

현재 국내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便益施設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대학의 便益施設 확보 수준 (1983년)

시 설	면적 (m ²)	총건 축면적 중 구성비 (%)	1인당면적 (m ²)
학생 및 교직원식당	88,066	1.627	0.198
후생 서어비스 시설	36,845	0.681	0.083
보건진료시설	16,578	0.306	0.037
학생자치시설	155,639	2.875	0.350
체 육 관	82,970	1.533	0.186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

주 : 전국 78개 대학의 면적을 합한 수치임

이러한 數值들은 그것만으로써는 過不足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學生會館의 면적¹²⁾에 있어 한국이 학생 1인당 0.2m²임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약 1.5m², 미국의 경우에는 0.96m²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수준이 대단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大學環境 文化化의 方向

유수한 文明批評家들이 예측하듯 21세기 이후 未來에 있어 바람직한 文化는 사람이 環境의 主人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함을 基調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일과 놀이가 時間的으로 구분되고 空間的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시 一體化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추세를 大學環境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이 엄격한 修道場(seminary)도, 살벌한 收容場(camps)도 아니고, 배우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일'과 먹고 자며, 쉬고 노는 '일'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場所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이야기

8)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서울 농대 등은 격심한 비행소음과 진동에 시달린다.

9) 정밀하고 고가인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 연구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10) "르브 목점 : 우리들의 대학촌", 「대학신문」, 1985년 11월 18일, p.5.

11) 문교부의 대학종합발전계획 작성지침에는 학생회관의 경우 학생 1인당 면적을 0.6(도심)~0.8m²(외곽)로, 체육관의 경우 소요면적을 0.265×총학생수+670(2000명 이하는 1,200m²)로 규정하고 있다.

12) 식당시설 제외

하는 '全日教育研究環境'—敎授와 學生들이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과 같이 비교적 功利的인 發想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施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수와 학생을 가급적 오래 學校에 붙잡아 두자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꿈 같은 大學環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대학이 추구하는 理念이 人間의 本性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文化的 存在(cultural being)'를 구현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人間의 慾求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自我具現慾求(self-fulfillmen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목표에 관련된 大學環境의 質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풀어서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이자 최저한 확보되어야 할 수준은 '作動性(workability)'으로서 大學이라는 '시스템'을 그럭저럭 유지하는 수준의 질이다. 아마도 講義室과 研究室만 있는 정도—현실적으로 보면 文敎部의 大學施設基準令을 겨우 지키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수준은 '適住性(livability)'이 만족되는 수준으로서 大學施設基準令에서 제시한 시설의 量을 지키고 質적인 측면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실상 최고의 수준은 大學構成員으로 하여금 각자의 潜在力量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我具現을 실현하고 환경의 主人意識을 갖게 하는 수준이다. 대학환경에 있어 作動성과 適住성이 우선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궁극적으로는 創意性이 보장되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며, 大學環境을 文化化한다 함은 이러한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다. 이 환경은 바로 大學의 自由와 學問의 自由를 보장하는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便益施設은 흔히 연상하는 대학 근처의 '낭만적'인 카페, 다방, 책방, 레코드 가게 등과 같은 시설도 포함되겠지만, 한층 더 格을 높여서 대학이 추구하는 創意性 발휘를

북돋우기 위한 支援施設이자, 그 자체가 文化成長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大學施設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文化的 殿堂—音樂堂, 博物館, 美術館 등—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대학의 日常活動과는 괴리된 채 별로 활용되지 않고 과시만 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즉 '文化化된 環境(cultured environment)'이 아니라 '文化를 위한 環境(environment for culture)'이라는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진정한 대학의 便益施設은 質이 높은 普通環境의 구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文化化된 환경인 것이다.

6. 主要課題

이와 같이 大學環境을 文化化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課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文化化의 대상이 되는 敎育研究施設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다. 즉 현행 법제에서 제시하는 校內 建物型 施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내의 屋外空間 전부와 대학 주변의 都市環境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사실 개념적으로는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이지만 法制와 大學行政에 반영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大學施設 基準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課題가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施設基準을 구체화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施設基準을 供給者—大學運營當局 등—위주에서 실제 利用者 위주로 바꾸도록 한다. 현재의 施設基準은 不實大學의 설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수준이라서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또한 國·公立 大學에서 質을 높이는 데에는 장애가 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條件을 고려하여 실제 利用者인 學生과 敎職員의 環境要求度を 반영하는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

13) A.H. Maslow의 人間慾求의 階에서 주장하는 최상의 욕구

둘째, 현재의 시설들이 集團利用을 도모하는 單一·大型·集中·專用의 시설이라는 결함을 탈피하여¹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未來의 대학환경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複數, 小型, 分散, 混用の 施設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便益施設이 원래 가지고 있는 敎育·研究活動에 대한 支援機能을 신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便益施設의 設置와 運營方式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의 시설에 利用時間帶에 따라 過密過疏現象이 나타나므로 便益施設 運營에 있어 經濟性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民間業者의 참여, 學生自營, 自動販賣, 移動販賣 등과 같은 다양한 運營體制를 도입하여 '서어비스'의 時間·空間的 틈을 메우고, 質的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자면 특히 國·公立大學의 경우에는 國公有財産의 管理處分 등에 관한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校外에 형성되는 '大學村'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학교 주변에 일반 商業地域과 다름이 없거나 오히려 더 不健全한 業種이 밀집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校內의 施設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需要를 內部化함

과 동시에 학교 주변에는 補完的이고 특색이 뚜렷한 大學街가 형성되도록 都市行政當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개 大學차원 이상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便益施設—극장, 학생 백화점, 건강관리시설, 호스텔 등—은 수개 大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民間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結

오늘날 韓國의 大學이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 보면 便益施設을 왕가왕부하는 것이 우스운 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많은 學生들의 意識이 종래의 大學文化를 反文化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많은 大學施設—특히 屋外空間—이 마찰과 갈등의 현장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大學이 추구하는 理念이 至高하고 대학의 生命이 그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고통 중에서 오히려 大學環境을 文化化하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環境이 生活을 지배하거나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4) 이른바 '센터'나 '會館'型的 시설이 여기에 속한다.